



‘경북간호사회 70년, 그리고 새로운 도약’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열려 … 화합의 축제 한마당

경북간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가 ‘경북간호사회 70년, 그리고 새로운 도약’ 슬로건으로 11월 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회원과 내외빈 등 1800여명이 참석해 경북간호사회의 지난 7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윤난숙 경북간호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북간호사회는 1946년 창립돼 7800여명의 회원을 둔 조직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선배님들이 간호사회 발전을 위해 쏟은 헌신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선배님들이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회원 모두가 하나 돼 신뢰하고 협력하며 간호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을 격려하면서 “경북간호사회는 70년의 역사 동안 간호발전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왔다”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권리향상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축사에서 “현장에서 북북히 환자들을 돌봐주시는 간호사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사들과 함께 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경북간호사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간호사들이 필요로 하는 간호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장욱·이태식·장영석·김지

식 경북도의원, 남영숙 상주시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경북간호사회의 70년 역사가 담긴 영상물이 상영됐으며, 간호사회 발전에 기

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장상=최명심 (포항세명병원 간호부장) △경북도지사상=송인숙(선린대 간호학부 교수) 김명애(순천향대 구미병원 사무처장) 김경숙(새희망클리스 원장) 구분선(차의 과학대 구미차병원 간호부장) 이은향(문경제일병원 파트장) △모범간호사상=강옥연(구미 보건소 지방간호주사) 조영애(칠곡군 익산초 보건교사) 박노정(영덕군 사진보건진료소장).

기념식에 이어 축하음악회가 진행됐다. 보컬그룹 V.O.S, 남성 3인조 중장단 혜민싱어즈, 레이저댄시팀 메이트가 공연했다.

식전행사로 순천향대 구미병원 간호사팀과 경북과학대 간호학과 치어팀이 축하무대를 꾸몄다.

기념식에서는 경북간호사회의 70년 역사가 담긴 영상물이 상영됐으며, 간호사회 발전에 기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se.or.kr

강북삼성병원 간호본부 승격 … 박미란 간호본부장



박미란 간호본부장은 “간호본부로 승격되면서 기존의 센터 및 건강의학본부, 예방 건강검진 등의 소

속이었던 간호사들이 간호본부 아래 하나의 가족이 돼 규모가 확장됐다”며 “더욱 탄탄하게 내실을

다져 보다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o@

“보다 나은 제도가 만들어져 더 많은 국민들이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수정 기자 sjchoi@

1일 2회 무료 이메일 모의고사문제 제공

무료 신청하기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통의 간호·보건 전문교육원

- 국가고시 학원부분에서 대한민국 이매징경영인 대상수상
- 보건·간호분야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소개
- Best of Best 학점수상
- 2006년부터 연속 E-Trust 인증
-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평생교육시설



믿을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소평률
E-trust 인증 획득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시설 신원 확인



간호직 학점수상 5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54675 회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간호직 공무원에 합격한 여성입니다. 저는 올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 별령을 기다리던 중에 간호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어 수험기간은 5개월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5개월 낮짓의 시간이 남아있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개인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전통 있고 간호직 강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앙고시교육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는 흐름을 잡고 매일매일 공부하였는데 전날 배운 걸 한번 익고 공부하면서 흐름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전공과목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주제들을 형광펜으로 밀줄 그으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기본 이론서를 다 보고는 전공문제 풀면서 모르는 부분을 교육원에 계속 질문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잘 전진부터는 이를 이번 기출문제를 계속 풀면서 오답을 따로 정리했고, 정리한 오답은 시험 전날까지 한 번 더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보건교사 학점수상

지난 시험에 낙방 후 학점수상했어요.. 52532 회원님

저는 지난번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였지만 계획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져 며칠씩 쉬기도 하고 처음에는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보니 학습효율이 떨어졌고... 시험에 실패..... 그동안의 나태함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험자료를 구하는데만 비싸게 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받은 수험자료를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의 시험학습계획은 시험 2주 전까지 모든 시험준비를 끝내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때 교육원의 핵심요약집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틈틈이 예매해 두었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 정리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점수상하였습니다.

간호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 진료직

보건직공무원

보건교사



중앙고시교육원의 학점수상 시스템!

- 전과목 이메일 모의고사 무료제공
- 영어단어 이메일 모의고사 무료제공
- 스마트폰(모바일) 강의 무료제공
 - *수강횟수 제한없이 무한반복 수강 가능
- Mp3 강의 무료제공
- 진단평가 모의고사 무료제공
- 기본서 문제집 무료제공
- 과목별 요약집 무료제공
- 기초영어 강의 및 교재 제공
- 면접 교재 및 강의 제공
- 시험 관련 정보 SMS 발송

* 직렬에 따라 제공되는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No.1 간호·보건의 온라인 전통 02) 979-8114
080-030-0001
www.joonganggosi.co.kr

충북간호사회 간호관리자 워크숍

충북간호사회(회장·한명자)는 간호관리자 워크숍을 10월 28~29일 제천 청풍문화재단지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간호사회 임원 및 전임원 등이 참석해 전문을 강화하고 간호사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분야별 현안문제를 비롯해 간호사 회 사업 홍보와 간호봉사단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명자 회장은 “그동안 간호사 회 사업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정책과 간호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더욱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o@

울산시간호사회 간호관리자 세미나

울산시간호사회(회장·류 말숙)는 2016년 간호관리자 세미나를 ‘의료서비스 디자인과 고객만족’ 주제로 10월 21~22일 개최했다.

서비스 디자인과 환자경험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간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디자인’ 주제강연이 진행됐으며, 환자경험증진 서비스 디자인 사례가 소개됐다.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



한 경연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의료계 최대 화두인 환자경험증진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 좋았다’며 “간호사들이 서비스 디자인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대전시병원간호사회 한마음 체육대회

대전시병원간호사회(회장·송미경)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 18일 한밭체육관에서 개최했다.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14개 병원에서 60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4개 팀으로 나뉘어 비전탑 쌓기 등 다 같이 협동할 수 있는 게임들을 진행했다. 각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회원들은 서로의 팀을 응원하며 함께 하는 시간에 의미를 두고 어울렸다.



송미경 회장은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여러 병원의 간호사들이 함께 활동하고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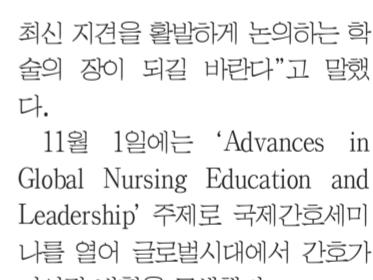
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 ‘과학기술과 간호혁신’ 국제학술대회

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소장·탁 성희)는 제11회 국제학술대회를 ‘Innovative Nursing Care and Technology’ 주제로 11월 2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간호실무와 연구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각국의 사례와 동향을 살펴봤다.

‘간호돌봄 혁신의 관점’ ‘간호에서의 빅데이터 사용’ ‘임상실무에서의 과학기술 적용’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최신 지견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학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1월 1일에는 ‘Advances in Global Nursing Education and Leadership’ 주제로 국제간호세미나를 열어 글로벌시대에서 간호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탁성희 소장은 “과학기술을 적용한 간호임상실무 및 연구에 대한

주혜진 기자 hjo@